



거포·토종선발 귀환 더 강해진 '무적 LG'

상무 이재원 12월 전역 타선 복귀
이민호·김윤식도 마운드 힘 보태
'비밀 병기' 허용주 내년 1군 유력
FA 김현수·박해민 거취 최대 변수

내부 육성과 외부 영입을 동시에 추진한 LG 트윈스는 7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고, 최근 3년 사이에 두 번 통합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겨울은 '자키고 키우는 시간'이다. LG의 대표적인 '외부 영입 성공 사례' 외야수 김현수와 박해민이 곧 자유계약 선수(FA)로 공시된다.

염경엽 감독은 차명석 단장에게 "김현수와 박해민을 모두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차 단장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지키려면 두 선수 모두 필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김현수, 박해민 전류를 이번 스토브리그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홍창기와 문성주의 입지는 탄탄하고, 최원영, 박관우, 김현종 등 외야 백업 자원들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 안타를 여러 차례 빼앗는 중견수 박해민,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콘택트 능력을 뽐내는 김현수는 계속해서 대권을 노리는 LG에 꼭 필요한 선수다.

LG는 박해민, 김현수 영입을 노리는 다른 구단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FA 영입에는 관심이 없다. FA 시장에 나온 대어급 선수들의 포지션이 기존 선수들과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2025시즌을 앞두고 LG는 '불펜 강화'를

스토브리그 목표로 정하고 장현식을 4년 최대 52억 원, 김강률을 3+1년 최대 14억 원에 영입했다.

여전히 불펜은 LG의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LG는 2026시즌 팀의 불펜진이 올해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내년 도입하는 아시아 퀴터를 불펜 투수로 뽑을 예정이고,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올해 6월 말부터 1군 마운드에 선 왼손 합덕주도 충분히 훈련한 뒤 2026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

염 감독이 '비밀 병기'로 꼽은 허용주도 2026년에는 1군 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틈이 없는 선발 자원도 보장된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민호, 내년 4월에 전역하는 김윤식도 팀에 힘을 보태나.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복무 중인 이재원은 올해 12월 전역해 LG의 화력을 키운다.

이재원은 올해 퓨처스(2군)리그에서 타율 0.329, 26홈런, 91타점, 출루율 0.457, 장타율 0.643을 찍었다.

입대 전에도 염 감독은 이재원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염 감독은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우승한 뒤 "구단에서 박해민, 김현수를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원, 김윤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다"며 "김영우의 연속성을 만들고 이정용, 함덕주, 장현식 등 불펜이 겨울에 준비를 잘하면 내년에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 구단과 현장은 '전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면, 정상을 지킬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2026년 수성을 위한 전력 강화 방안은 육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양민혁(왼쪽)이 3월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에서 요르단 야전 알나미마트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양민혁 다시 태극마크... 2선 공격진 젊은피 수혈

홍명보호, 11월 평가전 호출

유럽과 유망주 양민혁(포츠머스)이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탄탄한 2선 공격진에 새로운 전력이 추가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19세 공격수 양민혁을 11월 볼리비아거나 평가전 소집 명단에 올렸다.

양민혁이 대표팀에 소집된 것은 3월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양민혁은 18세 343일의 나이로 요르단전에 교체 투입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우리나라 남자 선수 중 최연소 A매치 데뷔 순위에서 12위로,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18세 351일)을 제쳤다.

그 이후로 한동안은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양민혁은 소속팀에서 입지를 다지며 발돋움 달구었다.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계약했으나 1군에서 뛰지는 못한 양민혁은 1월 챔피언십(2부)의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로 임대돼 경험을 쌓았고, 이번 시즌엔 포츠머스로 임대돼 챔피언십에서 한 시즌을 더 보내고 있다.

지난 시즌 QPR 소속으로 공식전 1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남겼던 양민혁은 이번 시즌 9경기에서 벌써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백승호 2경기 연속 결승골
버밍엄시티 4-0 대승 견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그라운드를 누비는 미드필더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국가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2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뜨리며 포효했다.

백승호는 5일 오전(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 세인트앤드루스 경기장에서 열린 밀월과의 2025-2026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14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골타임을 뛰면서 전반 28분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밀월전에서 또 선제 결승골을 터뜨린 버밍엄 백승호. 버밍엄시티 구단 SNS

백승호가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 모두 출전해 기록한 3호 골이다.

홍삼 품은
기력장어 골드

주식회사 윗이랑 대표이사 김종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지치고 힘들 때...
팔팔한 민물장어[기력장어] 하루 한포

100% 국내산 건강한 민물장어만 사용합니다.
국내산 6년근 홍삼을 더해 더욱 건강하게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국내산 민물장어는 시들해 지고 약해진 우리몸의 방패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국내산 민물장어로 진정한 영양을 선사합니다.
보양식으로 기력장어를 추천합니다.

원기(氣) 보충! 체력강화! 180포!

(6박스)

100% 국내산 민물장어[기력장어], 산수유, 흑마늘, 복분자, 6년근 홍삼까지 최적의 배합으로 맛과 영양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온가족이 드실 만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남편
-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
- 기력이 떨어지는 부모님
- 공부에 지친 수험생
- 성장기 어린 자녀

※ 남녀노소 누구나 좋은 민물장어와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푸짐하게... 저렴하게... 힘차게...

2박스(60포) ₩178,000 → ₩89,000
4박스(120포) ₩356,000 → ₩148,000
6박스(180포) ₩534,000 → ₩199,000

행사기간 : 2025년 9월 30일 까지 • 무료배송 • 50% 할인행사

●入金계좌 : 농협 301-0253-2226-11 주식회사 윗이랑 •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인혜택 • 제품주문 : 1588-3398

● 제조원 : 농협법인(주)가네 충북 제천시 바이오패로 143 ● 판매원 : (주)오메스바이오 서울 영등포구 영등로 58, 영성빌딩 4층

100% 국내산
민물장어